

GMQÒŃ ĘMPŃŃŃ 박사 꺿 귀납적 성경 공부 꺿 강의 ĆĆ꺿 야고보서 ĆĈĈĈĈ

© 2024 David Bauer 및 Ted Hildebrandt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20회차 야고보서 2:1-7 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명확하게 통일성을 형성하는 2장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 생각에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2장 안에 있는 두 가지 주요 단위입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여러분이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실증으로 붙잡아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는 물론 1절에 나오는 권고를 입증합니다. 우선 2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편파적인 태도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시는 것과 반대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8절부터 13절까지에서 그 편파성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납니다.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입증합니다.

즉,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면과 권면의 이유가 편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14절부터 26절까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일반 원칙을 가지고 입증합니다.

실제로 달리 표현하면, 영광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행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6절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일반적인 원칙 때문에, 행위가 없는 믿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원칙은 14절부터 17절까지에 제시되어 있으며, 이어서 그는 18절부터 26절까지 이를 뒷받침하는 논증을 제시합니다.

물론 여기서의 입증을 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입증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반복되는 대조가 있습니다. 실제로 왼쪽에 있는 모든 것이 함께 속해 있고 오른쪽에 대조되어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면, 2장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대조는 믿음의 모순과 믿음의 상응 사이의 대조입니다.

믿음의 반대에는 행위에 대한 믿음이 포함되며 편파적으로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믿음의 모순은 실제로 행위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는 반면, 믿음의 상응은 행위 속에서 활동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에서 발전된 것은 믿음의 모순을 통해 행위에 대한 믿음은

편파적으로 믿음을 유지하는 것, 율법의 일부를 지키거나 율법의 일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주는 것이 없이 말을 따뜻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과 황무하고 무익하고 의롭다 함도 없고 구원도 없느니라 믿음을 따라 행함을 받는 믿음이니 편견이 없는 믿음을 갖고 온 율법을 지키며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라 말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따뜻함을 얻고 주는 것이 없이 충만함을 받고 말만 하지 아니하고 행동하며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믿음을 거스려 행함으로 살며 열매 맺는 믿음, 유익이 있는 산 믿음, 열매 맺는 믿음, 유익이 되는 믿음, 믿음을 행함으로 살느니라 의롭게 하고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이것이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부자를 편애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이 고전적인 신학,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에 관한 이 매우 친숙한 신학적 주장을 실제로 하나로 묶는 구절은 바로 이 문단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되 행함이 없으면 선지자가 무엇이뇨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여 배부르게 하라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이 논증은 실제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가 가난한 자들과의 관계, 즉 가난한 자들과의 관계 문제와 관련하여 소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는 2장 1절부터 13. 이제 바울은 여기에서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단 하나의 명령과 권면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2장 전체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영광의 주이시니이다. 여기서 편파성이라는 단어는 인간에 대한 존중, 편파성, 보답이나 판단을 내릴 때 사람의 잘못을 포함하는 *prosopolempsia*입니다. 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장점이 아닌 외적인 상황을 고려하므로 다음과 같이 선호합니다. 더 부유한 사람은 그러한 재능이 부족한 사람에게 부자이거나, 높은 출신이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Thayer의 정의입니다. 이제 안구극증(*prosopolempsia*)이라는 단어는 신약성서에서 4번 더 사용됩니다. 로마서 2장 11절, 에베소서 6장 9절, 골로새서 3장 25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는 사도행전 10장 34절에도 형용사 프로소폴렘프테스가 있는데, 여기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편파성을 나타내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편파성, 즉 *prosopolempsia*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다른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사용되며, 하나님은 부정적인 주어입니다. 하나님은 편파성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편파성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초기 기독교 전통과 초기 기독교 편집 교육의 핵심 확인입니다.

여기서 방금 언급한 요점은 하나님은 편파성을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은 편파성을 나타내지 않으시며 따라서 우리가 편파성을 보이면 2절부터 13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는 이 개념을 실제로 입증할 것입니다.

이제 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세상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고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 구절을 취한다면, 하나님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편파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편파성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자에 대한 편애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편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문맥에서 2장 5절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편파성을 보이시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여기서는 편파성을 버리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전체에서 5절이 실제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편파성, 즉 편파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외적인 요소에 비해 참된 인격과 미덕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지 않았고, 부자들은 단순히 그들의 외부 환경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거부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또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들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지 않았으며, 부자는 단순히 그들의 외부 환경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에 의해 거부되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신다면 그분은 편파성을 보이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본질적인 공로, 즉 믿음과 사랑에 더욱 관심을 갖고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경향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단지 그들의 가난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성격을 기초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 2장 5절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부자보다 가난한 자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는 부보다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영적 빈곤 구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그들을 더욱 믿음과 사랑에 빠지게 만듭니다.

세 번째 요점은, 여기서 독자들에게 편견을 나타내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자에 대해 편견을 나타내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편견을 나타내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광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 즉,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임스가 앞서 말한 논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하고 있던 것, 즉

부유한 사람들에게 편파성을 보이는 것보다 다소 덜 불쾌할 것이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물론 부자에 비해 가난한 사람에게 편파성을 보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덧붙여서, 법은

실제로 특히 법원에서 편파성을 나타내지 않는 이 사업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분명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레위기 19장 15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게 됩니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큰 자의 편을 들지 말며 공의로 네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여기서

네 번째 주요 요점은 편파성에 대한 언급이 야고보서의 주요 주제, 즉 겉 모습이 반드시 궁극적인 현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1장 2절부터 4절에서 생명의 잠재력을 지닌 시련의 실제 현실에 비해 표면적으로는 파괴적인 것처럼 보이는 시련의 모습에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부자는 꽃에 비유됩니다. 아름답지만 꽃과 그 아름다움은 지나가리라, 1장 9절부터 11절. 그러므로 여기서 관심은 겉모습 뒤에 있는 참된 실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이 명령을 받은 기회와 문맥을 차별하여 차별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여기 속격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어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여기에서처럼 명사가 뒤에 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에서 속격 구성이 무엇인지 표현하며 그리스어에는 다양한 종류의 속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격이 무엇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객관적 속격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을 가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당신이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당신은 구원을 위해 그분을 신뢰합니다. 즉,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목적 속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관적 소유격일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대한 동일한 종류의 믿음이나 신실함을 갖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내 생각에 그것은 객관적 소유격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예수가 묘사되는 방식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 주, 영광스러운 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편파적이지 않고, 믿음의 합당한 대상으로서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개념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여기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의 주로 묘사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가능한 번역입니다. 번역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NRSV는 이것을 당신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님 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번역하지만 그분은 영광의 주님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관해서는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 가난 속에서 그분의 영광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주님으로 삼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의 역할을 취하심으로써였습니다.

그분이 가난한 자들의 무력함을 꺼안으셨을 때, 그분이 자신의 모든 자원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분이 주님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심판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5장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주로 심판하러 다시 오실 분으로 묘사되며, 심판 때에 가난한 자와 착취당하는 자들의 원인을 변호하실 것입니다(5장 7절부터 11절).

또는 세 번째 가능성은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분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의 역할을 맡은 결과로 바로 영광을 받는 역할을 맡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착취당하는 자들의 대의를 옹호하실 분으로서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요점은 동시에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 사이의 긴장과 모순이라는 점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편파적으로 붙잡는 것은 근본적인 모순을 수반합니다.

그것은 우선 고린도후서 14장부터 26절까지의 의로운 행위를 낳지 않는다는 점에서 믿음의 본질과 모순됩니다. 여기에는 편파성에 관한 명령에 순종하고 레위기 19장 5절과 같이 율법에서 편파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이미 인용한 구절이지만 신명기 1장 16절과 17절, 그리고 신명기 16장 19절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의로운 행위를 낳지 않는다는 점에서 믿음의 본질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행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점에서 믿음의 본질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믿음의 대상과도 위배됩니다. 그분의 영광, 특히 무능력을 통해 그분의 통치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통치, 그분은 주님으로서 부자 압제자들에 맞서 가난한 사람들을 변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고려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사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축복에 주목합니다. 복음 전통에 따르면, 그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최고의 표현 또는 표현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서 61장에 따르면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했듯이 그것은 그분의 모범과도 모순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셋째로 그들의 신앙 체험과도 모순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을 그들이 행한 일에 비해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의 차별은 믿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분께서 앞서 설명하신 대로 그들의 차별은 믿음이 가난한 자들을 아첨하고, 믿음이 가난한 자들을 아첨하고, 믿음이 풍부한 자들을 배척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문제에 자신들의 믿음을 적용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 여기 Asbury 신학교에서 수년 동안 귀납적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George Alan Turner와 저는 실제로 몇 년 전에 교수직을 맡아 맹점, 거룩함의 맹점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께 충실하도록 요구하는 삶의 특정 주요 측면에 대해 단순히 눈을 멀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는 적어도 그가 2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주요 사각지대였습니다. 이제 그는 2절부터 13절까지 계속해서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물론 여기서의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자세한 분석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는 2절부터 7절까지 편파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선택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부자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2절부터 4절까지에서 제시하는 시나리오를 통해 이 시나리오를 전개합니다. 만일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너희 모임에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오면 그리고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주목하여 이르기를 부디 여기 앉으라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서라든지 내 발 앞에 앉으라 하느냐 너희가 서로 차별하여 재판관이 되지 아니하였느냐 나쁜 생각으로? 제 생각에 이 시나리오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시로 제시된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는 그가 금반지를 입고 좋은 옷을 입은 남자가 들어올 경우 제3종 조건문인 *if...then*를 사용하여 이것을 소개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나는 여기서 그리스어를 너무 깊이 설명하고 싶지는 않지만, 물론 우리가 언급한 것과 같은 조건문이 있을 때, 그것이 있을 때마다 조건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건문이 있는 경우 조건문은 *if* 절의 전제의 진실성 또는 현실성을 실제로 가정하는 직설법이 있는 A인 일급 조건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급 조건문이었다면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임을 시사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그는 제3급 조건문을 사용하는데, 이는 사실상 현실이 아니라 잠재성의 개념과 잠정성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실제 사건이 아닌 실제 일어난 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법이 그것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 구절이 고도로 양식화되고 과장되어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극단적인 방식으로 묘사된 극단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또한 이것이 일반적인 서한이라는 관찰을 제시하므로 바울이 특정 교회, 상황,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서신에서 하는 것처럼 그는 실제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 교회에서, 이것이 일반 서신이라는 것은 그가 실제로 특정 교회에서 일어나는 특정 사건을 다루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것이 예시로서 제시된 것이며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물론 그는 여기서 제시하는 원칙만큼 그 사건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을 실제 사건이 아닌 하나의 예로서 제시하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비난한다면 불가능할 방식으로 신학적이고 사목적인 의미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서는 외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강조에 주목하십시오.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너희 모임에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는 그 사람을 실제로 묘사한 것이 아니니라. 그는 그들의 외모를 설명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그들이 무엇을 입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부자, 돈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는 외모를 기준으로 묘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에 대해 아주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시나리오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야고보가 이 시나리오를 교회 권징의 절차로 제시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예배로 제시하기를 원하는지 여부입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에서 볼 수 있는 편파성을 나타내지 말라는 명령은 일반적으로 재판, 재판 문제, 사법 절차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기에서 반대하는, 즉 신앙 공동체에 대한 사법적 청문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등에 반대하는 사법적 청문회를 위해 징계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마도 예배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그는 여기서 법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이것을 1장 26절과 27절과 연관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은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 특히 종교와 종교적 의무, 종교 활동 등의 표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판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가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심판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제임스 측에서 사법적 결정이나 사법적 조치 등을 협소하게 언급하기보다는 기독교 관계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판단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의 문제는 사법적 결정에 반대하는 발언에서 표현되는 태도의 하나이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가 실제로 가난한 사람보다 부유한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는 측면에서 부유한 사람에 대한 편파성을 보여주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일종의 사법 회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배에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고 물론, 바로 기독교 예배에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편파성을 보이는 것은 심오하고 아이러니한 모순이 될 정도입니다. 물론 또 다른 것은 그가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 집회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돈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너희 모임에 들어오거든 주목하라. 그래서 금반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부자가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그는 그리스도인 모임에 참석할 의도를 갖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좋은 옷을 입은 이 사람이 생겼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매우 부유한 사람, 즉 금반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여기서 단어는 램프로스, 밝거나 빛나는 옷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도 허름한 옷을 입고 들어오고.

따라서 이는 구별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외부적이고 피상적이며 지금도 사라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1.11 그리고 다시 5장 2절부터 3절까지. 너희 금, 5장 3절에서 너희 금과 은이 녹슬었나니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처럼 너희 살을 먹을 것이라고 읽느니라.

당신은 마지막 날을 위해 보물을 쌓아 두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말론적 심판이 자연적인 부패 과정을 통해 느껴지고 경험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이 5장 2절과 3절의 요점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는 현실을 지속하는 것보다 겉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실재의 빛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모습과 실체를 혼동하고, 현재의 실재와 궁극적이고 영원한 실재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특히 성경 전통에서는 지속되는 것이 실제였습니다. 덧없는 것은 실제보다 적습니다.

이제 나는 여기서 동일한 원리, 즉 겉모습에 초점을 맞춰 겉모습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내재적 가치를 말할 수 있는지, 동일한 원리가 빈부 구분을 넘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인종 차별, 계급 차별, 문화적 또는 민족적 우월성 문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심지어 육체적으로 덜 매력적인 사람보다 육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에게 부여되는 탁월함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모와 본질적인 장점에 기초한 다른 종류의 인간 구별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덧붙여서, 초라한 옷 등을 포함하여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과 관련하려는 경향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몇 년 전 여기 Asbury Seminary에서 나의 선생님 중 한 분이셨던 Dr. Robert Traina는 일반서신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가르칠 때마다 항상 흠잡을 데 없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야고보서 2장을 가르치러 왔을 때, 그는 수업에 들어와 더럽고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평소의 모습으로 가르칠 때와 그런 옷을 입었을 때 그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 실감할 수 있어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서서는 외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도 강조합니다.

반응은 내부 태도, 에피블포(epiblepo)로 시작됩니다.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고, 호의를 가지고 바라보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존중하고, 그런 다음 외부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외부적 행동은 실제로 말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혀를 오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혀를 오용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혀의 죄입니다. 여기서 연설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시나리오에서는 부유한 사람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그가 말한 것입니다.

연설의 우선 순위에 유의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 여기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에게 말한 후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먼저 부유한 사람에게 말하되, 특히 말투의 어조에 유의하십시오. 그건 그렇고, 이것은 우리가 여기 이전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해석상의 톤이나 분위기, 즉 구절의 톤이나 느낌에 대한 전체 작업을 가리킵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런데 당신은 그 가난한 사람에게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으라 하였느니라. 톤은 실제로 장면의 깊은 관계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제임스에 따르면 그는 이 사실을 3장 뒷부분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혀는 실제로 사람의 가장 깊은 성격을 표현합니다.

온 사람이 이러한 계급 구별에 동의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의 측면에서 부자를 아첨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감정에 무례하거나 무감각합니다. 이 행동에는 깊은 개인적 헌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명예, 앓음, 불명예, 수치심의 요소를 포함합니다. 물론 발 앞에 앉는 것은 수치심과 불명예의 표시입니다. 신약성서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약성경의 구절인 시편 110장 1절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여기를 주목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주의 원수들로 의자가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당신의 발을 위해 여기 앉으십시오.

그런 다음 가난한 사람에게 내 발 앞에 앉으십시오. 여기에는 가치 체계, 가치 있는 것, 그리고 영광의 요소를 반영하는 명예를 보여주는 개념, 즉 초월적으로 놀랍고 아름답고 강력한 것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현실, 위대한 것에 대한 그들의 견해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한 여기서 가까움과 먼 언어의 기능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기 앉아주세요, 여기 앉아주세요. 거기 서세요.

그렇다면 거리는 실제로 공간적 거리가 일종의 시글라, 관계적 거리의 표시로 사용되기 위해 사용됩니다. 부자와 관계를 갖고 싶어하고, 아무 관계도 갖고 싶지 않고, 관계적으로 자신을 거리두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그리고 물론, 제가 말했듯이, 이것은 또한 교제, 친밀감, 교제, 부자와의 교제, 가난한 사람들과의 분리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포함합니다. 이제 저는 초대된 직위가 해당 직위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는 근거리와 원거리뿐만 아니라 낮고 높은 측면에서도 공간적이다. 여기 앉아주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니면 거기 서서 내 발 앞에 앉으세요.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과 다른 사람의 발 앞에 앉는 것은 모두 노예의 자세였습니다. 초대된 직위는 직위에 대한 이해를 반영합니다.

부자는 높아지고 가난한 사람은 낮아진다. 내가 말했듯이 발 앞에 서거나 앉는 것은 모두 주인과 관련하여 노예의 위치였습니다.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들, 모임에 들어오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과 관련하여 주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독자들과 관련하여, 또는 여기에 묘사된 이들 사람들과 관련해서도 겸손해집니다. 그들은 대부분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2장 6절의 문맥에서 계속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난한 사람을 욕되게 하였으니,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가 아니냐? 당신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부유한 것으로 높임을 받을 사람들과 관련하여 부자의 역할을 맡고 싶어합니다. 이는 지위에 대한 왜곡된 견해입니다.

이제 이것은 동기 부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동합니다. 그러한 구별을 함으로써 독자들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 비해 부유한 사람들의 입장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 자신을 높이고 싶어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은 부자의 지위를 갈망하여 자신보다 낮은 사람보다 자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즉각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은 서로 분별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헬라어 단어

는 디아크리노마이(diakrinomai)인데, 이 단어는 야고보서의 다른 곳에서도 의심과 심판을 의미할 수 있고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Diakrinomai는 구별한다는 뜻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의심하거나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1장 6절에서도 의심을 뜻하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실제로 믿음이 부족함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2장 1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너희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편파성을 나타내는 것은 디아크리노마이(diakrinomai), 즉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시 14절부터 26절까지에서도 그는 믿음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재판관이라는 의미의 디아크리노마이(diakrinomai)라는 단어는 재판관이라는 뜻의 크리노(krino)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 사업은 판단을 내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4장 11절과 12절에서 사사가 되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할 때에도 이 사실이 다시 언급됩니다. 주님은 한 분이고 재판관도 한 분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재판관으로 행동하는 것은 실제로 한 재판관의 역할을 찬탈하는 것이며, 따라서 실제로 신성모독 행위입니다.

이제 그분은 너희가 차별을 두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실 때, 너희 가운데 차별을 두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기서 헬라어를 번역한 것으로 가능한데, 아마도 집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이거나 지역 회중을 방문하는 기독교인 방문자임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구별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신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서 의심이나 판단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 자신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측면에서 어떠한 구별도 있어서는 안 되는 구별을 만들고, 분열된 영혼, 분열된 마음, 분열된 정신을 도입하고, 이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갖고, 자신 안에서 구별을 짓습니다. 그런데 아르마의 결론은 여기 4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분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서 그는 실제로 내부나 태도로 되돌아갑니다. 제임스는 당신이 그들을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서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들을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신 자신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한 생각으로 재판관이 된 것이 아니냐? 즉, 당신은 당신이 그들을 판단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재판관이 되지 않았는데 당신 자신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받기 쉬운 존재입니까? 당신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그 판단이 실제로 당신을 판단한다는 뜻이다. 야고보는 재판관은 오직 주님뿐임을 강조합니다.

11장과 12장, 그리고 다시 5장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재판관이 되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특권을 찬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권을 침해하고 인간의 지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은 악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야고보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판사가 될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류의 판단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반면에,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판단, 아니 더 나은 분별의 과정이 있다는 것은 인간관계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문제는 그들이 단순히 재판관이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가진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분별력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아첨하지 않는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물론 인간관계에 있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야고보는 인간의 삶에 필요한 이런 종류의 판단, 인간관계에 관한 이런 종류의 결정은 하나님의 관점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기의. 그러므로 그들은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경쟁하여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복종합니다. 야고보가 묘사하는 심판은 가난한 자들을 정죄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야고보는 이런 심판은 오직 악한 생각에서만 나올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즉, 악한 생각과 배려와 욕망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을 번역한 단어는 대화(Dialogismon)입니다. 풍부한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말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목적이나 계획과 관련이 있고 계산과 실제로 후원 시스템에 복종하는 점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부자를 아부하는 동기의 일부가 부자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맥락에서 실제로 시사합니다. 즉, 부자들의 후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 반대되는 자기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 중심에 비해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제 그는 이 시나리오에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논의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은 편파성이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5절부터 7절까지가 실제로 이 전체 부분의 핵심입니다.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세상 가난한 자를 택하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지 아니하였느냐”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욕되게 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당신은 가난한 사람을 모욕했습니다. 너희를 억압하는 자는 부자가 아니냐?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가 아니냐? 당신을 위하여 일컬어지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이들이 아닙니까?

여기 5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개념을 소개합니다.

신성한 선택.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자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수사학적 질문의 힘에 주목하십시오. 그가 이 선언을 수사적 질문의 형태로 제시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에 부요하도록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냐? 그는 그들이 이것을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했으며 이것이 이미 그들에게 드러났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그들이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했던 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한 것에 대한 그들의 죄책감을 실제로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 누구든지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고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것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알아야 할 것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또한 물론 이 수사적 질문은 실제로는 설득을 위한 수사적 장치이다. 그것은 독자를 끌어당겨 작가가 의도한 대로 질문에 답하도록 사실상 강요합니다.

수사적 질문은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수사적 질문을 통해 여기에 제시된 진실에 동의하고 진실을 소유하도록 강요되도록 변형을 가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는가? 글썄요, 저는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합니다.

첫째, 유연적으로. 즉,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선택하셨다는 근거로 말입니다. 구약에 따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드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그분이 그들의 편을 들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편애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말하자면 하나님은 가난에 편파적이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에 론 사이더(Ron Sider)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한 자들의 편을 택하시며 어떤 의미에서는 가난한 자들을 선호하시며 실제로 그 상황에 평등을 도입하신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의 진실을 포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세상과 일반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멸시를 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가난한 자들의 편을 드시면서 실제로 그들을 부자들과 동등한 위치, 동등한 수준으로 키우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구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데려가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만일 그분께서 그들의 편을 들지 않으시면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구약에서도 가난과 경건의 관계에 관한 이 모든 사업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안전과 재산을 둘 만한 것이 없거나 별로 없기 때문에 일종의 영적 지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경건과 의의 본질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버리십시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기독교론적으로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태도는 복음 전통 전체와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의 수용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경험적으로 볼 때, 독자들 자신은 거의 전적으로 가난한 계층 출신이었습니다. 물론 그분께서 우리가 방금 인용한 2장 6b절과 7절에서 인용한 이 구절에서 계속해서 제안하셨습니다. 그들 자신과 회중을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상대적으로 소수의 부유한 사람들이 그들의 그룹에 속해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선택의 도덕적 성격에 주목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믿음이 부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묘사됩니다. 분명히 가난한 사람과 믿음이 풍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일대일 동일시가 없지만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첫째, 여기서 우리는 부의 부족과 경건함 사이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 부와 악의 연관성을 보았습니다. 사실, 부의 부족과 경건함, 부와 악 사이에 동일시가 없다면, 동일시가 없다면 둘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후자, 즉 부와 악의 관계는 6절과 7절의 부자에 대한 묘사에서 나타나며, 그들은 도덕적인 용어로 묘사됩니다.

너희를 억압하는 자는 부자가 아니냐?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가 아니냐? 당신을 위하여 일컬어지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이들이 아닙니까? 이런 종류의 행동은 부자들에게만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부와 연결되며 일반적으로 부의 표현, 억압, 법의 법원 절차 이용, 법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만드는 것, 심지어는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일컬어지는 존귀한 이름.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개념, 부가 그분의 은혜의 표시라는 개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생에서 의로운 사람들에게 물질적 또는 현세적 혜택으로 보상하신다는 개념에 위배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생에서 의로운 자들에게 상을 주시지만 물질적인 혜택으로 보상을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풍부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경험하는 삶의 질에 변화를 가져오지만, 작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모든 신체적, 사회적 어려움을 경시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사람들이 자동으로 이 축복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빈곤만을 근거로 한 자동 승인은 없습니다. 야고보는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믿음이 부유합니다. 믿음이 부자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글썄요, 확실히 그는 여기서 적어도, 최소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아마도 아마도 그들이 많은 믿음이나 귀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그가 시련, 즉 1장에서 믿음의 시련에 관해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국의 상속자들입니다. 이제 그는 왕국의 상속자가 됨으로써 그들이 다가올 왕국의 상속자임을 특별히 암시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왕국이 여기에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믿음이 부자가 되는 것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풍부하기 때문에 천국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상속자입니다. 물론 상속인은 자녀, 특히 아들의 지위를 암시합니다.

그들은 아이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관련하여 자녀의 역할을 맡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약속을 받습니다. 아버지나 부모는 자녀에게 약속을 하고 자녀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믿음이 풍부한 그들은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또는 전형적으로 아버지로부터 약속을 받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가난한 사람들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약속을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데 장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을 그들이 볼 때, 그분에 대한 그들의 신뢰와 믿음은 커집니다. 그들은 믿음이 풍성해지며 자비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공급하시는 아버지로서 그분을 사랑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이 선택은 6절에 설명된 인간의 선택과 대조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이는 실제로 기독교 윤리가 이미테이션 데오(imitatio deo), 즉 이미테이션 데이(imitatio dei), 즉 하나님을 본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도 가난한 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모방을 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과 모순되었습니다. 당신은 가난한 사람을 모욕했습니다.

당신은 선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윤리에는 실제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신 사람들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존중하지 않으시는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주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야고보는 가난한 자를 욕되게 하는 자는 죄를 범한다는 잠언 14장 21절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왕족을 모욕했다고 그는 제안합니다. 그들이 왕국의 상속자들임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왕자이고 가난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통치합니다. 그들은 왕국의 상속자인 한 방백입니다. 그런데 당신께서는 이 방백들을 종처럼 대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계속해서 여기에서 실제로 모순을 입증하고 6b절에서 실제로 입증하며 부자의 성격 때문에 부자를 위해 가난한 사람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6a절의 암묵적인 제안을 입증합니다.

너희를 억압하는 자는 부자가 아니냐?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가 아니냐? 당신을 위하여 일컬어지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이들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착취하고 압박하는 자가 아니냐? 카타 듀나스 듀오. 이것은 실제로 광범위한 용어입니다. 물론 착취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는 부와 착취를 분명히 연결하지만 이는 매우 미묘한 형태를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착취와 억압에 대해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진술입니다. 여기에는 권력, 특히 경제적 권력의 왜곡이나 남용이 포함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경제적 힘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여기에는 Helko가 사용됩니다. 여기에는 헬코(helko)라는 용어로 표시되는 불의나 정의의 왜곡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한의 돈과 권력의 관계는 그들을 속여 법정에 끌고 가거나 강제로 법정에 끌어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여기에는 물질적 착취를 목적으로 물질적 자원을 기반으로 한 실제적인 사회적 불의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를 위하여 일컬어지는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아니냐? 여러분은 그들의 손에서 박해를 받고, 그들의 손에서 착취를 받고, 그들의 손에서 학대를 당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닌 이름 때문입니다.

이 박해자들, 이 부유한 박해자들, 이 부유한 신성 모독자들은 비록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더라도 기독교 신앙과 가난한 사람들의 대의 사이의 연관성을 인식합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이 즐기고 있는 부의 오용을 폭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보다 더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물론 아이러니는 묻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과 동조합니다 . 이런 일을 하며 부유한 자를 존경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과,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 노골적으로 모독하는 자들과 동조합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합니다. 이 행동은 그들의 세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일컬음을 받은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아니냐, 곧 세례 곧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나 사도행전에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거의 틀림없이 너희 위에 불러온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이 아니냐? 마태복음 형식으로? 그것은 그들의 세례와 그들의 신앙의 본질에 모순되는 것입니다.

물론, 암묵적인 결론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신앙에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성격을 보여주며, 신앙과 행함 사이에 분리가 있을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음,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이 여기서 갖고 있는 다음 입증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편파성이 8절부터 13절까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디오 세그먼트로 이동하기 위해 여기에서 잠시 멈추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20회차 야고 보서 2:1-7 입니다 .